제 2 회 한중 성장-지사 회의 발표문

지린성 인민정부 부성장 주톈수(朱天舒)

(2018 년 11 월 27 일, 베이징)

존경하는 리샤오린 회장님,

존경하는 박원순 회장님,

존경하는 한중 각 지방정부 대표 여러분,

내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친구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성장-지사 회의에 참석하여 "기후와 환경 영역의 보호 및 대책"이라는 주제를 두고 여러분과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계 생태문명 건설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선도하는 중요한 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협력상생하는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수립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동북지역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양호한 생태환경은 동북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며 또한 우위적 조건이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지린성은 다양한 생태유형과 완전한 생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장백산원시림생태구, 동중부 야산구릉지대 식물군락생태구, 중부 송료평원생태구, 서부 초원습지생태구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산림율이 44.2%, 각종

자연보호구가 51개에 달합니다. 특히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의 발원지인 장백산은 알프스산, 코카서스산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3대 황금 수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라시아대륙 북부에서 가장 완벽한 삼림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장백산은 최초로 유엔 "인간과 생물권(ManandBiosphere)"에 가입한 "국제 A급 자연보호구"입니다. "녹색"은 이미 지린성의 경제 및 사회 전반분야의 발전을 추진하는 기조로 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은 고도화 발전에서 추구하는 사회목표이며 녹색발전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근년들어 중국정부는 생태문명발전을 위한 정책제정과 제도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전례없이 엄격한 "환경보전법"을 출범하고 생태파괴 방지를 위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지린성은 "생태환경 보호는 곧 생산력 보호이며, 생태환경 개선은 곧 생산력 발전이다."는 발전관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녹색협동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물가공을 주축으로 전통산업의 녹색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린 1호"위성을 대표로 하는 7대 뉴모멘텀산업 클러스터화 발전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녹색제조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1 차 5 개년계획 시기에 수립한 전통공업체계의 신형 녹색공업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기후가 좋으며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산림율은 64%에 이르러 도처에 나무가 우거지고 해안선이 상당히 길며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아름다운 해안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청계천, 광주천을 대표로 하는 세계급 역사문화 및 생태 복구 사업을 펼쳐 사람과 물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생태공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생태관리와 경제발전을 결합시킨 모범사례입니다. 한국은 세인이 괄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였을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저탄소 등 친환경 산업도 매우 발달되어 기술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순환경제를 비교적 일찍이 발전시킨 나라로서 저탄소 녹색발전전략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확립하였습니다. 지린성과 한국은 기후조건, 생태환경 등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1994년 지린성과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뒤로 생태농업, 환경보전 등 많은 영역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하여 산업협력 기반이 잘 갖추어졌으며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등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유엔에서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사업을 개시한지 30 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중 양국이 21세기를 향한 협력파트너 관계 수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한국과 지리적, 인간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지린성의 우위"를 한층 더 발휘시키며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 심화하고 한층 더 고도화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아래와 같은 네개의 협력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의 생명공동체입니다. 현재 지린성은 서부 하천과 호수의 연결, 동부 천연림 보호, 중부 흑토 보호, 송화강유역 종합정비, 생물다양성 보호, 스펀지도시 "6대 중점 생태공정" 등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전략과 고도로 합치됩니다. 쌍방은 생태보호복원, 환경오염퇴치, 생태자원개발 등 영역에서 교류를 심화하고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전면적 협력을 추진하여 두만강지역의 생태공동체를 함께 건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녹색제조와 관련한 협력을 심화하기 바랍니다. 지린성과 한국은 자동차 제조, 석유화학, 농산물 가공, 첨단장비 제조, 제약 등 영역에서의 협력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으며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포항그룹, 삼성 신에너지전지 등 중점프로젝트의 협력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지린"건설을 중심으로 동북진흥을 위한 금융협력 기제의 역할을 발휘시켜 커넥티드카, 스마트 제조 등 신생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신형의 녹색제조산업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지린성에는 중국과학원 장춘광기계연구소, 응용화학연구소 등 과학연구기관이 121 개 있으며 연구개발실력이 높고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 능력이 비교적 강합니다. 한국 SK 그룹, LG 그룹 등 유명 기업들은 생태과학기술 응용과 환경보호기술 연구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한국과 생태환경보호 영역의 산업혁신 및 기술 공동개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생태과학기술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강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린성은 중국의 중요한 곡물 생산기지로서 한국과 현대농업, 생태식품 협력도 심화, 확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환경보호 관련 인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문화가 번창하면 민심이 통하고 서로 배우고 본받으면 화합하고 상생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한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선도하에 생태환경보호 관련 인적, 문화적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민간교류를 증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지린성에는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62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한국에도 서울대학 등 명문대학들이 있습니다. 교류협력기제를 혁신하여 생태환경보호 영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보다 많은 새로운 플랫폼을 함께 구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년 8월 지린성에서 제 12차 중국-동북아박람회 및 제 1차 동북아 지역협력 지방정부 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저는 지린성을 대표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의 참석과 한중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소중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푸른 강산이나 얼음과 눈으로 덮인 강산이나 모두 금같은, 은같은 강산입니다. 기후와 환경 영역의 보호와 대처를 함께 강화하여 한중 양국의 21세기를 지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증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한중 성장-지사 회의의 원만한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